

다문화교육과 한국 다문화가정의 이해:

다문화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및 다문화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서종남*

요약

현대사회는 다국적기업의 등장과 시장의 확대로 다문화적 인재육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타 문화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다문화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대학 교육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글로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이는 다문화 교육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들의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터득함으로써 미래에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이중 언어를 원활히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적 인재로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은 다문화상담에서도 나타난다. 상담 분석 결과,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이 전체의 5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서는 다른 문화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사회

*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부소장(교육학), scnami@hanmail.net

는 아직도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제 우리도 단일민족과 단일문화라고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이주근로자가정이나 결혼이민자가정 등의 구성원인 다문화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도 다문화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교육방법과 교육활동 및 교재개발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등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문화는 공통성과 상이성을 모두 갖고 있다. 따라서 지구촌은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이같이 다양한 문화를 소유한 사회와 인종이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도 순연의 모습—문화생태이론Theory of Eco-cultures(서종남, 2008)—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주제어: 다문화상담, 다문화교육, 문화생태이론

I. 들어가는 말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한 개 이상의 문화집단에 속한 개인이 서로 다른 문화집단과도 상호 관련을 맺는 것이다. 문화와 교육은 긴밀한 관련을 가짐으로 다문화교육은 중요한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즉 문화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인 동시에 교육내용이 된다. 따라서 문화의 다양성은 교육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며, 다문화에 대한 개방과 상호작용은 교육과 사회 전반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다문화교육은 교육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시장경쟁과도 관계가 있다. 현대사회는 다국적기업의 등장과 시장의 확대로 다문화적 인재육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타 문화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다문화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대학 교육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글로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이는 다문화 교육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한국 거주 다문화인들은 어쩌면 새로운 우리의 민족사에 한 획을 그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또한 그 부모들의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터득함으로써 미래에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이중언어를 원할히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될 재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다문화교육의 이해

1. 문화와 다문화교육

다문화사회의 문제는 대부분 노동력의 수입을 통해 들어온 새로운 복지 대상으로서 소외된 이주근로자나,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결혼이민자가정 등의 문제로 여겨왔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에서 다름difference에 대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점은 모두가 서로 같은 존재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나 보편적 인권universal value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피부색이나 언어 또는 문화가 서로 다르더라도 이를 차별discrimination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성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문화의 개념

문화는 한 사회집단의 생활양식, 즉 인간이 만든 총체적 환경이다. 따라서 문화는 역동적이고 복잡하며 변화가 심하다. 그러므로 흑인, 유대계 미국인, 일본계 미국인 등과 같은 집단의 문화에 대해 가르칠 때도 교사는 이들이 이민을 온 시기와 사회계층, 지역, 종교, 성, 특수성, 교육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문화는 다문화 교육의 주요개념으로 거시문화macroculture와 미시문화microculture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거시문화는 국가문화나 공유된 문화와 같은 큰 문화를 의미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보다 세부적인 문화가 미시문화이다. 모든 국민국가nation-state는 미시문화들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가치, 상징, 사상을 지닌다.

2) 다문화이론

다문화이론으로 주류문화에의 동화교육을 강조한 용광로melting-pot 이론, 서구문화에 바탕을 둔 모자이크mosaic 이론, 그리고 오늘의 다문화교육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샐러드볼salad-bowl 이론 등이 있다.

필자는 다문화이론으로 문화생태 이론Theory of Eco-cultures을 제안한다. ‘eco-cultures’는 필자가 새로이 만든 다문화 용어로서 ‘ecosystem(생태계)’에서 차용한 것이다. 생태계가 식물, 동물, 인간 등의 생물체 간, 그리고 그 생물체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의 균형 관계를 말하듯이 문화생태eco-cultures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균형을 유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한다(서종남, 2008).

3) 다문화교육의 개념

다문화는 인종과 민족그룹, 성별, 종교, 성 취향 등을 포괄하는 것이고, 다문화교육은 성,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 신체적인 능력에 관한 이슈와 관계된 것이다. 이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문화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에 대해 뱅크스Banks(2008)는 학교교육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학교나 다른 교육기관을 변화시키고자 모든 사회계층, 성별, 인종, 그리고 문화적인 집단 등이 학습을 위해 균등한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베넷Bennett(2007)은 미국의 다문화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관과 신념에 기초한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문화적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교수학습 접근법으로, 미국과 같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다문화교육 옹호자들은 공교육의 주요 목표가 모든 학생들의 지적, 사회적,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네 가지 범위로 구분하였다. 즉 평등equity-균등교육을 지향하는 운동, 교육과정 개혁-다원주의적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재고하는 것, 정보에 근거한 문화교류-상호작용을 위해 다른 문화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자문화를 자각하는 과정, 사회정의와 편견에서 특히 인종주의·남녀차별·계급주의 등 모든 종류의 차별과 맞서는 실행교육이라고 논급했다.

램지Ramsey(1987)는 다문화교육을 8가지로 정리하였다(하현숙, 2000, 재인용). 첫째, 성, 인종, 문화, 계층,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발달시키고 다른 집단과의 교류를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아동들이 자신의 정체성, 감정이입, 다른 집단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좀더 큰 사회의 일부로서 인식하게 한다. 셋째, 타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해 존경심과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게 한다. 넷째, 아동의 사회적인 초기 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개방과 흥미,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 협력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한다. 다섯째, 사회에 대한 인식, 사회에 대한 책임감, 자신들의 가족과 이웃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키도록 한다. 여섯째, 아동이 사회환경 속에서 자발적이고 비판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곱째, 개인적인 스타일, 문화지향성, 언어배경에 적절한 사회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적, 사회적 능력 발달을 돕는다. 여덟째, 학교와 가족 간의 효과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촉진시키도록 한다.

이상에서 보여주듯이, 다문화교육은 한 국가의 문화권 내 다양한 집단을 위한 교육의 기회균등에 중점을 둔다. 또한 다문화교육은 인종, 문화, 언어, 사회계급, 성, 장애 등을 포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아동들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4) 다문화교육에 대한 오해

뱅크스(2008)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3가지로 지적하였다.

(1) 다문화교육은 소수민족만을 위한 교육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교육이 흑인, 남미계 사람, 가난한 자, 여성 그리고 소외된 자들만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대다수 다문화교육학자들은 다문화교육이 백인, 남성, 중산층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이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이 증대되는 오늘날 세계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를 함양하는 총체적 교육개혁운

동이라고 지적했다(Banks & Banks, 2004). 지난 10년간 개념과 이론의 토대가 된 다문화교육은 특정 민족이나 성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민족적 갈등이 깊어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이 식견을 갖추고 남을 배려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다문화교육은 반(反)서구적이다.

이론들 중에는 다문화교육을 반서구적이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는 자유와 정의, 평등이라는 서구적 민주주의의 이상을 추구했던 민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에서 기원하였기 때문이다. 다문화교육은 미국의 개국 초기 극소수 엘리트 계층에만 부여되었던 시민적 이상을 모든 시민에게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많은 다문화교육학자들은 다문화교육이 반서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서구사회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서구사회의 발전은 많은 유색인종과 여성의 희생과 기여 덕분이라고 봄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반성적 reflective 시민행동 또한 다문화이론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3) 다문화교육은 국가를 분열시킨다.

슐레진저Schlesinger(1991)는 다문화교육이 국가를 분열시키고 사회통합을 해친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다문화교육은 분열된 국가를 통합하기 위한 교육이지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다문화 교육은 소수민족집단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일반인을 위한 시민교육이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육은 반서

구적이거나 한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주체적 수용이며 정체성의 확립인 것이다. 또한 다문화교육은 국가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인 것이다.

2. 다문화교육의 배경

다문화교육은 대체로 미국의 역사를 기저로 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 사회재건주의 교육철학, 예술사회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사회학과 인류학을 배경으로 한다.

1) 역사적 배경

20세기 초에 존 듀이[John Dewey]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제창하였다. 이는 듀이 시대 자유주의liberalism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이민사회는 그들 고유의 문화 대신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White Anglo-Saxon and Protestant, WASP 문화인 백인 주류의 문화에 녹아들기를 요구하는 ‘용광로melting-pot’ 이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다문화교육은 용광로 개념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자 하는 미국사회의 인식 변화에서 비롯된다. 1960년대 시민권 운동에 앞장섰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학교에 그들을 교사와 행정가로 더 많이 채용해줄 뿐만 아니라 권한도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과정에 세계에 공헌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생애를 게재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출판사들은 이에 부응하여 교과서에 그들뿐만 아니라 황인종의 기록도 넣었다. 이 같은 영향으로 교사교육 국가공인기구The 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 NCATE에서도 교사교육프로그램에 다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된 것이다.

2) 철학적 배경

다문화교육은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적 입장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에서 시작된다. 이는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 문화의 독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모든 문화는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 다름, 즉 개성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문화적 다원주의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즉 한 사회의 문화체제를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다양한 부분문화(subculture)들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보편적인 이성을 거부하고 우연성, 다양성, 지역성, 차이성, 구체성 등을 강조한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지금까지 지배적이었던 서양의 백인문화, 수도 지향적인 중앙문화, 성인문화, 남성문화, 엘리트문화 대신에 지금까지 무시되고 소외되었던 유색인종문화, 지방문화, 청소년문화, 여성문화, 민중문화 등이 강조된다.

이 같은 포스트모더니즘은 철학, 예술, 문학 등의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기존의 지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교육내용의 재구성 과 교수-학습방법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3. 다문화교육의 목적

다문화교육은 중요한 교육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운동이다. 다문화교육의 다양성은 모든 시민들에게 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1) 벅크스의 다문화교육의 목적

벅크스(2008)는 다문화교육의 목적을 6가지로 구분하였다.

- (1) 개인이 타 문화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은 이해와 지식을 통해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2) 학생들에게 문화적 · 민족적 · 언어적 대안들alternatives을 습득시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의 학교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백인주류Anglo-centric 문화가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 (3) 학생 모두에게 자문화, 주류문화, 그리고 타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습득시키는 것이다. 예로 주류인 백인학생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African-American, 즉 흑인영어Ebonics(1973년에 흑인 사회심리학자인 Robert Williams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Ebony—흑단, 새까만, 흑인의—와 Phonics—음성학—의 합성어)의 독특함과 풍부함을 배울 필요가 있고, 아프리카계 미국학생들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소외감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주류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표준영어를 말하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4) 소수민족집단이 그들의 인종적,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과 차별을 해소시키는 데 있다. 필리핀계 미국인, 멕시코계 미국인,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 중국계 미국인은 학교와 주류사회에 동화되어 성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민족적 유산과 정체감, 그리고 가족마저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유대계 미국인, 폴란드계 미국인, 이탈리아계 미국인 역시 학교와 주류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민족적 문화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 (5) 학생들이 글로벌적이고 동일선상flat에 있는 테크놀로지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그리고 수리능력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뉴욕, 런던, 파리, 그리고 베를린의 학생들이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개

발도상국가에서 교육 받은 학생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6)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공동체, 국가적 시민공동체, 지역문화, 그리고 지구촌의 공동체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신의 공동체문화를 버리고 주류국가의 문화에 동화되기를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동화주의assimilationism적 관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판을 받게 된다.

2) 켄들의 다문화교육의 목적

켄들Kendal(1983)은 다문화교육의 목적을 5가지로 나누었다(정선희, 1997, 재인용).

- (1) 자신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문화와 가치도 존중할 수 있게 한다.
- (2) 다문화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 (3) 인종주의 등에 가장 영향을 받는 유색인종의 아이들이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갖도록 돕는다.
- (4) 문화적 다양성과 인간으로서의 공통성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도록 돕는다.
- (5) 다문화적인 공동체사회에서 서로 독특한 역할을 맡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적은 다양하게 정의되나, 다문화교육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각각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

는 긍정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도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게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확립시키고, 한국문화와 타 문화에 대한 다양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Ⅲ. 다문화상담을 통해 본 한국의 다문화가정

본 연구는 2007년 10월 28일부터 2008년 1월 13일에 걸쳐 총 77명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근로자 및 결혼이민자가정과 같은 다문화인들을 대상으로 사이버상담과 전화상담 또는 직접상담을 통하여 그들의 고통과 요구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과 찾아오는 상담(온라인상담 및 전화상담)을 통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상호의 이해를 도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 다문화상담의 방법 및 범위

1) 온라인상담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및 서종남(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부소장)의 다문화카페 등에 개설하였으나, 다문화인들의 특성상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2) 찾아가는 직접상담

온라인상담을 2곳에 개설하여 시도하였으나 대부분의 다문화인들은 자신의 아이디 공개를 원치 않거나 온라인 사용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해오지 않았다. 따라서 찾아가는 직접상담을 하게 되었으며, 총 7개 장소에서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상담은 이주근로자들의 특성상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행사장이나 각 기관 등으로 찾아가 그들의 고충과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 '2007 안산 어울림 한마당' 현장에서 상담

- 장소: 안산 와스타디움
- 날짜: 2007년 10월 28일(일)
- 상담인원: 40명

(2) 수원시 지원센터 방문상담

- 장소: 수원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 날짜: 2007년 12월 22일(토)
- 상담인원: 5명

(3) 수원시 지원센터 방문상담

- 장소: 수원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날짜: 2007년 12월 30일(일)
- 상담인원: 12명

(4) 가평초등학교 일일문화체험방문(경기대학교) 시 상담

- 장소: 경기대학교 미래관 5층
- 날짜: 2008년 1월 11일(금)
- 상담인원: 1명

(5) 안산 광진교회 내 인도네시아교회 방문상담

- 장소: 시흥시 정왕동 광진교회 내 인도네시아교회

- 날짜: 2008년 1월 13일(일)

- 상담인원: 5명

(6) 경기다문화교육포럼에서 상담

- 장소: 경기대학교 미래관 4층 포럼 행사장

- 날짜: 2008년 1월 12일(토)

- 상담인원: 4명

(7) 지구촌사랑나눔터(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방문상담

- 장소: 성남 외국인노동자의집

- 날짜: 2007년 11월 12일(월)

- 상담인원: 3명

3) 전화상담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2007 외국인 어울림마당'에서 상담하였던 클라이언트 7명과의 추후상담(16회)으로, 지속적인 전화상담(서종남 부소장의 휴대전화 및 센터전화)을 통해 도움을 주거나 그 방법을 모색하였다.

(1) 김포 거주 외국인 내담자 남자 3명(가톨릭, 20대 1명, 30대 2명)

- 날짜: 2007년 10월 12일(금), 17일(수), 11월 15일(목) - 3회

- 내용: 체계적인 한글교육을 받기 희망하여 추후상담을 통해 한글교육이 가능한 타 기관과 연계를 시켜주었다.

(2) 광진교회 내 인도네시아교회 목사(40대, 남, 인도네시아)

- 교인 총 9명의 대표로 예코 목사가 전화상담을 하였다.

- 날짜: 2007년 10월 13일(토), 23일(화), 11월 23일(금), 12월 12일(수), 17일(월) - 5회

- 내용: 자녀(딸) 교육문제와 더불어 광진교회 내 인도네시아교회 교인

(목사 가족 3명과 근로자 6명) 총 9명의 경우, 한글교육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그 교회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여건상 특정 기관 등을 찾아가 배우는 것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따라서 추후상담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서종남 부소장의 경기대학교 교직과 수강생 2명이 자원봉사 신청)으로 교회 내에 한글교육강좌를 개설하여 주 1회, 매주 일요일 저녁 7시~9시까지 한글교육을 실시하였다.

2008년 1월 13일에는 직접 방문상담으로 그들의 요구와 애로사항을 살펴보았다. 이 교회 외국인근로자들은 일요일에도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하기 때문에 오후 7시가 되어야 교회에 올 수 있음을 알고 그에 따라 일요일 저녁에 수업을 하도록 하였다.

(3) M(여, 30대, 종교 없음, 나이지리아)

- 직접상담(안산축제) 후 지속적으로 전화상담을 하였다.
- 날짜: 2007년 10월 15일(월), 26일(금), 11월 7일(수), 20일(화), 12월 7일(금) - 5회
- 내용: 취학연령인 자녀(딸)의 교육문제에 대한 고민을 호소하는 한편, 외국인인 남편이 혼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후 현재 이태원에서 수공예 액세서리 판매를 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사정이어서 생활의 어려움, 보다 안정적인 생활과 딸의 학교입학문제가 절실하여, 추후상담을 통하여 타 이주민복지센터와 연결시켜 줌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4) 안산 거주 근로자 2명(30대, 여, 종교 없음)

- 날짜: 2007년 10월 18일(목), 26일(금), 11월 16일(금) - 3회
- 내용: 열악한 근로 환경과 주거문제, 그리고 임금문제 등을 호소하였고, 이와 함께 한글교육도 요청하였다. 따라서 한글교육은 안산 주재

한 이주민센터로 안내하고, 임금문제 등도 타 이주민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로와 주거문제는 성남의 한 외국인 이주민센터로 연결하여 도움을 주었다.

2. 다문화상담 사례 및 내용분석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경제문제, 사회적 가치관 문제, 자녀·부모관계 문제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2007년 10월 28일부터 2008년 1월 13일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인 77명을 대상으로 7개 지역에서 총 23회(직접상담 7회, 전화상담 16회)에 걸쳐 직접상담과 전화상담을 실시한 결과 여러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1) 국적별 분포

국가별로는 필리핀이 전체 내담자의 20.8%로 가장 많았고, 코트디부아르, 가나, 기니, 콩고, 일본이 1.3%로 가장 적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11.7%와 인도네시아 10.4%에 이어 캄보디아와 중국이 6.5%, 스리랑카가 5.2%의 순위를 보임으로써 주로 동남아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국적별 분포

국적	빈도(명)	비율(%)
필리핀	16	20.8
키르기스스탄	9	11.7
캄보디아	5	6.5
스리랑카	4	5.2
태국	4	5.2
우간다	3	3.9

네팔	4	5.2
베트남	3	3.9
우즈베키스탄	2	2.6
몽골	3	3.9
인도네시아	8	10.4
미얀마	2	2.6
중국	5	6.5
방글라데시	2	2.6
나이지리아	2	2.6
코트디부아르	1	1.3
가나	1	1.3
기니	1	1.3
콩고	1	1.3
일본	1	1.3
합계	77	100.0

2) 성별 분포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전체의 58.4%였고, 여자는 41.6%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이는 이주근로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많음을 의미하며, 우리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이주근로자의 대부분이 남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성별 분포

성별	빈도(명)	비율(%)
남자	45	58.4
여자	32	41.6
합계	77	100.0

3) 연령별 분포

연령별로는 20대가 41.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장 많은 나이인 50대가 1.3%로 그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상담자의 대부분이 이주 근로자로서 힘차게 일할 수 있는 20대가 가장 많고,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적게 나타난 것은 우리 노동시장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요구를 드러내 주는 것이다.

표 3 연령별 분포

연령	빈도(명)	비율(%)
20대	32	41.6
30대	33	42.9
40대	11	14.3
50대	1	1.3
합계	77	100.0

4) 종교별 분포

종교별로는 기독교 · 회교 · 가톨릭교가 24.7%의 비율로 동일하게 가장 높았고, 힌두교가 2.6%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국가별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필리핀이 가장 높고 인도네시아가 2위로 나타난 것과 비례하여 가톨릭과 회교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종교별 분포

종교	빈도(명)	비율(%)
기독교	19	24.7
회교	19	24.7
가톨릭	19	24.7

불교	12	15.6
힌두교	2	2.6
무교	6	7.8
합계	77	100.0

5) 거주지별 분포

거주지별로는 안산이 전체의 3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고양, 용인, 익산, 인천, 오산, 남양주, 가평이 1.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거주지에서 안산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그 지역에 이주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곡동이 있고, 또 국경 없는 마을 등 다문화인들의 모임 공간이 위치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산 다음이 수원지역이나 이 지역의 클라이언트는 대부분이 결혼이민자들의 집단이므로 지역적인 특성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이 서울로 11.7%인데 이는 서울 전체 지역을 합산한 것이어서 세부적인 지역(동 단위)으로 보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표 5 거주지별 분포

거주지	빈도(명)	비율(%)
안산시	25	32.5
수원시	13	16.9
화성시	8	10.4
서울시	9	11.7
시흥시	4	5.2
부천시	2	2.6
김포시	4	5.2
고양시	1	1.3
용인시	1	1.3

익산시	1	1.3
인천시	1	1.3
오산시	1	1.3
남양주시	1	1.3
가평군	1	1.3
성남시	5	6.5
합계	77	100.0

6) 상담내용

본 상담을 종합해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으로 이는 전체의 53.2%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한국어교육과 일자리문제로 9.1%로 나타났으며, 이어 한국어교육과 자녀교육문제가 7.8%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임금체불, 문화의 격차에서 오는 고충, 의료문제, 경제문제, 거주와 환경문제 등은 5% 안팎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요구가 언어문제와 일자리, 자녀교육문제 등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언어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등록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둔 외국인의 경우, 자녀교육문제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호소하였다. 이들은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겪게 될 차별문제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전체적인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관심의 대상이 한국어교육과 일자리 그리고 자녀의 교육문제 순임을 알 수 있다. 그들 요구의 대부분이 한국에 거주하기 위한 필수 요건들임을 생각할 때, 이는 그들의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판단된다.

표 6 상담내용별 분포

상담내용	빈도(명)	비율(%)
한국어교육	41	53.2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함	3	3.9
한국어교육과 자녀문제	6	7.8
한국어교육과 의료문제	2	2.6
한국어교육과 일자리문제	7	9.1
문화적 차이	2	2.6
자녀교육	2	2.6
직장환경	2	2.6
한국어교육과 회사에서의 적응	3	3.9
의료적 문제	1	1.3
경제적 문제	3	3.9
한국어교육과 문화적 차이극복문제	1	1.3
한국어교육과 날씨문제(너무 추움)	3	3.9
자녀교육과 생계유지문제	1	1.3
합계	77	100.0

7) 상담장소 및 상담방법

본 상담은 필자 한 사람이 수행을 하다보니 77명이라는 제한된 인원으로 이루어진 한계를 보이나, 직접상담에서 의미 있었던 점은 상담자가 찾아오기 어려운 내담자들을 직접 찾아감으로써 그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그들의 요구와 관심을 도출해 낼 수 있었던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중 7명은 추후상담(16회)으로 지속적인 전화상담을 받아, 문제의 일부는 직접 도움을 주거나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문제해결을 돕고자 하였다.

상담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다문화인들에게 있어 사이버상담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미등록 근로자들의 경우는 직접 찾아가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노출을 꺼렸

고, 합법적인 거주자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3년이 지난 후에는 자신들도 미등록 근로자가 될 수 있음을 염려한다고 했다. 특히 사이버공간에는 아이디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한 신분의 노출은 자신들의 신변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처럼 다문화상담에서 사이버상담은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되어 직접상담과 전화상담을 병행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이버상담은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고, 직접상담과 전화상담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표 7 | 상담장소별 분포

상담장소	빈도(명)	비율(%)
안산 와스타디움	40	57.1
수원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12	17.1
수원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5	7.1
가평초등학교 현장방문	1	1.4
안산 광진교회	5	7.1
경기다문화교육포럼	4	5.7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지구촌사랑나눔터)	3	4.3
전화상담	7	9.1
합계	77	100.0

IV. 맺음말

오늘날 우리사회는 국내거주 외국인 인구가 100만을 넘어서면서 급속히 다인종·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는 이들 중 31.5%가

거주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이민자 자녀와 이주근로자 자녀도 가장 많이 취학하고 있다. 다문화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이 안산이고 두 번째가 부천이며 그 다음이 가평지역이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다문화가정의 다문화이해교육과 그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그 자녀들과 일반학생들의 상호문화이해교육과 그를 위한 다문화교과교육의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은 위의 다문화상담에서도 나타났다. 상담 분석 결과,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체의 53.2%를 차지한 비율은 그들의 요구를 시사했다. 그 다음이 한국어교육과 일자리문제로 나타났고, 이어 한국어교육과 자녀교육문제가 차지하고 있음은 한국 거주 다문화인들이 언어 능력의 저하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임금체불과 문화의 격차에서 오는 고충과 의료문제, 경제문제, 거주와 환경문제 등이 그 다음의 순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 거주 외국인의 요구가 언어문제와 일자리, 자녀교육문제 등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미등록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둔 외국인의 경우, 자녀교육문제에 많은 관심과 문제점을 호소하였고, 특히 이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게 될 차별문제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서는 다른 문화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아직도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제 우리도 단일민족과 단일문화라고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이주근로자가정이나 결혼이민자가정 그리고 새터민 가정 등의 구성원인 다문화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다문화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교육방법과 교육활동, 교재개발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등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문화는 공통성과 상이성을 모두 갖고 있다. 지구의 반대편에서도 유사한 문화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가까운 곳에서도 낯선 문화를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민족들이 세계로 흩어지고 또 모여서 살아가는 지구촌은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그렇다면 다문화사회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 모델은 무엇일까. 바로 대자연이다. 자연의 일부인 인류 역시 그 섭리를 따른다면 이 세상은 조화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각양각색의 꽃과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 조차도 있는 그대로 자기의 역할을 해낸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단지 다르다는 것만이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이같이 다양한 문화를 소유한 사회와 인종이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도 순연의 모습—문화생태 이론(Theory of Eco-cultures(서종남, 2008)—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순연의 모습, 즉 ‘eco-cultures’는 필자가 새로이 만든 다문화용어으로써 ‘ecosystem(생태계)’에서 차용한 것이다. ecosystem이 식물, 동물, 인간 등의 생물체 간, 그리고 그 생물체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의 균형관계를 말하듯이 eco-cultures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균형을 유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한다.

참 고 문 헌

- 서종남(2008). 다문화의 이해. 제138기 경감 기본교육과정 강의집. 경찰대학.
- 정선희(1997). 다문화교육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실태 조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하현숙(2000). 다문화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양육실태 연구조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Banks, J. A.(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4th ed.). Boston: Allyn & Bacon.
- Banks, J. A. & C. A. M. Banks, eds., (2004).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Bennett, Christine I.(2007).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6th ed.). Boston: Allyn & Bacon.
- Schlesinger, M. Jr.(1991). *The Disuniting of America: Reflections on a Multicultural Society*. Knoxville: Whittle Books.

Abstract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Korean multicultural families:

Upbringing the talented through the multicultural education

Suh, Chongnam

(Deputy Director, Center for Kyonggi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is world of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needs to raise people with multicultural awareness, that is ability to understand cultural differences, to adapt themselves to these differences and to work well with all sorts of people with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That can be achieved through multicultural education, and college education, especially, is asked to prepare students for contemporary world. An ultimate goal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us can be described as the raising of conscientious and conscious awareness of universal values or human rights. If we recognized other people who are of different skin colors, speak different languages, and etc, the global society we are living in would be more harmonious and peaceful one.

When it comes to multiculture, Korea is no longer a country of the same race and the same culture. As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has passed over one million, Korea has rapidly become a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 Therefore, ethnic Koreans need to recognize mutual differences and cooperate with the peoples of different backgrounds. However, a recent study conducted by the researcher has revealed that foreign residents living in Korea have various difficulties ranging from language abilities, jobs and children's educations to stereotypes,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hat proves the importa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Korean society and also gives rise to the need to improve education methods, education activities,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Cultures have common features and differences. So, we can find similar cultures at the opposite ends of the earth. Conversely, we also can find unfamiliar cultures nearby. Harmonic coexistence among these similar and different cultures may make our global village, in which various races are living together, more healthy multicultural global society as a whole.

If human beings, who are part of Nature, follow the provisions of the Nature, the world will become more socially harmonized. In Nature, even flowers, a blade of grass, a tree and a stone do not discriminate against another. Nature takes its course and it accepts it for what it is. Likewise, in our global village, we must live together not only as a multicultural and multiracial society, but also as part of nature. From this notion, the researcher invent the

“Theory of Eco-cultures.”

The “Theory of Eco-cultures” is derived from the word, ecosystem. As ecosystem means a pattern of balanced relations among all things in nature—plants, animals, stones, and etc, “eco-cultures” implies a balanced form of living together among the peoples of different cultures who, too, are part of nature.

Key words: multicultural Counseling,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of eco-cultures